

도시와 농촌 지역 주민의 건강행동과 행복에 관한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y on Health Behaviors and Happiness
in Urban and Rural Area Residents in Korea

최라현, 남은우, 문지영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 연구목적

행복은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로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건강특성, 건강행동, 사회연결망 및 지역 사회 참여와 주관적 행복 변수 간의 관계를 비교분석하며 이러한 요인이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인과적인 영향을 연구함에 목적이 있다.

■ 연구방법

전라북도에 위치한 농촌 지역 A군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도시 B구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조사방법은 응답자의 자기기록법을 원칙으로, 훈련된 조사원에 의한 일대일 면접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각 지역에 등록된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계층적 층화표본추출법에 의해 20세 이상 인구규모 19,587명인 A군에서는 195명을 대상으로, 20세 이상 인구규모 261,354명인 B구는 58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총 711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 연구결과

성별 분포는 남성 47.9%(339명), 여성 52.1%(369명)이었고, 연령별 분포는 30대 21.4%(152명), 40대 21.3%(151명), 20대 20.4%(145명) 순이었다. 소득은 200만원~400만원 미만이 41.2%(28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졸 이상이 45.6%(323명),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4.8%(457명)이었다.

지역별 건강행동의 경우 도시 지역 주민이 음주를 더 많이 하고 있었고($p < .001$), 흡연

울과 아침식사를 하는 비율은 농촌 지역 주민이 높았다($p<.001$). 도시와 농촌 지역 주민 간 사회적 연결망에 관해 비교한 결과 농촌 지역 주민(3.85 ± 0.53)이 도시 지역 주민(3.44 ± 0.50)보다 높았고($p<.001$), 지역사회 참여에 있어서는 농촌 지역 주민이 활발한 조직 참여와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었다($p<.001$).

기본적 특성과 행복간의 관계에서는 도시 지역 주민이 행복한 사람이 더 많았고($p<.05$), 2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행복한 사람이 더 많았다($p<.01$). 건강특성과 행복과의 관계에서는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느끼고 자살충동이 없는 사람이 행복하고($p<.001$), 음주를 하지 않는 사람이($p<.05$), 규칙적 운동을 하는 사람이($p<.001$), 아침식사를 하는 사람이 행복하고($p<.05$), 행복한 사람의 사회적 연결망이 그 정도가 높았다($p<.001$). 또한 조직참여, 종교생활과 행복과의 관계가 유의하였다($p<.01$).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기본적 특성 변수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지역과 주관적 행복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즉 농촌 지역 주민이 더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었다($p<.05$). 다음으로 기본적 특성과 건강특성, 건강행동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주관적 건강, 자살 충동과 행복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이는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하고($p<.001$), 자살충동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이다($p<.001$). 다음으로 사회적 연결망과 지역사회참여 특성을 추가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사회적 연결망($p<.01$), 자원봉사 참여($p<.05$)가 행복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에 있었다.

■ 결론

본 연구는 지역사회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주관적 행복수준을 측정하고 건강, 사회적 연결망 및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과 행복 수준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결과를 통해 도시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의 건강행동 실천행태와 사회적 연결망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도시와 농촌 간에 차이점이 있어 각 지역에 적합한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신적 건강의 구성요소인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건강 행동 이외에도 사회적 연결망과 같은 인간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